

2024 표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속복교회



2024년 10월 13일 청년부 예배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우린 쉬지 않으리 전하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심으로	Behold
기 도		장보라 자매
성경봉독	사도행전 28장 11-23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사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전심으로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봉헌기도		최동현 목사
축 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운영단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교회 / 사역 소식
 - 10월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합니다!
- 홍기수 (10/17), 서우석 (10/20), 강성경 (10/28)
 - 오늘 친교 | 김한솔 형제가 준비하였습니다.
 - 고기파티 | 10월 26일 청년부 & 청장년부 고기파티를 합니다. 함께할 친구들과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 연주회 | 어제 10월 12일 (토요일) 새축복교회 본당에서 정지혜 자매가 연주자로 함께한 가을맞이 클래식 4중주 연주회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0/13	장보라	IE종아셀
10/20	강성경	럽셀
10/27	김하진	예수파셀
11/03	정성원	IE종아셀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장년예배	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양육과 훈련 안내

- 새가족 교육 (3주)
- 세례자 교육 (5주)
- 결혼 학교 (4주)
- 통독 훈련 (매년 1번)
-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이 질문지 안에 있는 질문들은 “대화과 목상을 돕는 질문” 들입니다. 시험문제와 같이 기계적으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질문을 보다가 나누고 싶은 목상이 생긴다면, 주어진 질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없는 질문을 여러분이 셀원들에게 던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마주치고, 그 마주침을 셀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셀 모임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41013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도행전 28장 11-23절

사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첫째, 계획이 바뀌어도 사명에 뿌리내린 확신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합니다.

(행 28: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행 28:15)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
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
으니라

바울은 원래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24절) 그러나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들로 인해 그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어그러졌지만, 그의 사명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교류한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에 대해 큰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바탕으로 쇠사슬에 묶인 상황에서도 그는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눔 질문

Q. 당신은 계획을 벗어난 변화에 익숙한 성향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만 마음이 편안한 성향입니까?

Q.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상을 가장 크게 벗어났던 변화의 순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예상치 않았던 삶의 변화로 속에서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회복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계획은 어긋났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이 극심한 변화에 당황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붙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믿음의 친구와 교제, 기도, 말씀 묵상, 예배).

Q.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편인가요, 아니면 가까워지는 편인가요? 고난과 변화를 신앙으로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성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Q.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큰 성숙과 깨달음, 배움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둘째, 교회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 28:15)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2)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은 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묘한 방법으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묘한 방법으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들과 서신으로 교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존재만으로 큰 힘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지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눔 질문

Q.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만나게 하신 섭리와 그 안에서 경험한 선물을 나누어 봅시다.

Q.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새축복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새축복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Q.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복음을 맡은 우리는 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함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수갑을 찬 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상황을 보고 편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한계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환경이나 능력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어떤 한계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눔 질문

Q.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예배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나 무겁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며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Q.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넷째, 복음 전도자는 거절감과 낙심을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과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을 상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는 거절감과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Q. 복음을 전하였으나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절감을 극복하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에 반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본적이 있습니까?

Q.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표정, 말,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떠올려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했을까요?